

연구자권리선언 1주년 학술대회 토론

# 지식공유의 관점에서 본 연구자 권리와 복지

박배균

지식공유연대 공동대표  
연구자의집 운영위원장

[geopbg@snu.ac.kr](mailto:geopbg@snu.ac.kr)

# 지식공유의 의미

- **OA와 지식공유운동**

- 한국의 지식공유운동은 OA 이슈를 계기로 시작됨
  - “논문 구독료 인상에 속 앓는 대학도서관” (교수신문, 2018년 2월 10일)
  - “국립대 9개 대학 DBpia 구독 중단... 독자적 시스템 구축할 것” (교수신문, 2019년 2월 18일)
  - “대학도서관, 한해 수십억원 달하는 국외 전자저널 구독료 놓고 고민” (대전일보, 2019년 3월 10일)
- 상용 디비업체들의 횡포를 계기로 지식 상품화를 문제제기하는 지식공유운동이 시작됨
- 특히, 학술지 논문의 Open Access 주장

- **OA를 넘어서는 지식공유의 가치**

- 지식공유는 OA에 머무는 협소한 가치가 아님

- **‘커먼즈(communs)’로서의 학술지식**

- 학술지식은 연구자들의 사회적 협력의 산물 & 열린 공공성을 가진 공공재(박서현 2020)

- 학술지식은 사적으로 소유되어 상품화될 수 없는 공동자원 → 커먼즈로서 유지되어야 공적인 가치를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음

- 지식 커먼즈의 파괴는 학술지식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려, 궁극적으로 학술생태계와 연구자 공동체의 절멸을 가져올 것임

- 최근의 대학 위기는 이러한 지식 커먼즈의 파괴에 따른 학술지식의 사회적 가치의 상실에 기인한 것

# 지식커먼즈와 연구자 권리 증진

## 1. 지식커먼즈의 (재)생산이 연구자 권리와 복지 증진의 전제 조건

- 대학의 신자유주의화 + 학문 자본주의의 지배력 증대 → 지식의 자산화, 상품화 심화
- 1) 학술 공동체, 지식 커먼즈의 파괴 → 연구자의 개별화 + 연구자 노동시장의 파편화, 양극화 → 연구자 내부 불평등과 차별 심화
- 2) 대학과 학술지식의 사회적 공공성 약화 → 대학과 학술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 급락 → 연구자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도 급락

## 2. 연구자 권리와 복지의 증진은 지식 커먼즈 형성의 필수 조건

- 지식공유(예, OA)를 지식생산 노동의 손쉬운 이용과 착취의 계기로 보는 견해에 반대
  - OA에 대한 자유주의적 반응: OA 보다는 학술지 논문 저자들에게 저작권을 돌려주고 원고료를 주자...
- 지식커먼즈 관점에서의 반론
  - 예술가 vs. 연구자
  - 개별 저자에게 원고료 주기 보다는 지식 생산 노동에 대한 보다 사회화된 정당한 보상체계 구축이 더 필요
  - ➔ 대학 개혁,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원 강화, 연구자 권리와 복지의 증진 등을 통해 지식생산의 노동이 장기적으로 공정하게 보상되는 사회화된 체계를 갖추어야 함

# 연구자 복지법 입법을 위한 전략

- **2022.12.13. 민형배 의원실 주최 간담회**
  - 2가지 상이한 방향의 가능성
    1. “연구자 권리와 복지에 대한 기본법”
      - 선언적 의미의 기본법 입법
      - 이후 다양한 법안들에 포함된 연구자 관련 조항들을 수정
    2. 직접적인 연구자 복지와 공제 기능의 제도화에 초점
      - 자발적 연구자 공제회 조직 + 연구자 상생기금 조성 → 정부의 금전적, 제도적 지원을 얻어내는 방식
  - 어떤 방향이 더 좋을까???